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일~2월 29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일~2월 29일

대내경제 85

<경제성과>

1월 인민경제계획 생산성과

<관광>

신식장비와 공항을 앞세워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는 북한

<에너지>

자연에너지 활용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북한

전력사정이 개선된 북한 일부지역

<기타>

북한의 산업분야 기업 실태

대외경제 88

<대북제재>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북제재와 중국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90

<개성공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개성공단 경험보험금 지급

2015년 개성공단 실적

대내경제

<경제성과>

민주조선(2.3, 2.4), 노동신문(2.3, 2.6)

1월 인민경제계획 생산성과

『민주조선』과 『노동신문』에서는 각 부문별 1월 경제성과가 보도되었음. 석탄공업성, 철도성, 립업성, 기계공업성, 식료일용공업성, 잠업비단공업국은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보도하며,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경제성과를 지속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임.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전국적으로 자급비료생산성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함. 평양시에서는 거름원천을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군증적으로 벌려 계획된 자급 비료생산을 전부 끝냈음.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가축의 배설물, 풀거름, 개바닥흙을 비롯한 거름원천을 찾아 정보당 수십톤의 거름을 생산함.

<2016년 1월 부문별 경제실적>

부문	경제실적
석탄공업성	- 인민경제계획: 103%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및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100% 이상
기계공업성	- 인민경제계획: 161%
식료일용공업성	- 인민경제계획: 110%
잠업비단공업국	- 인민경제계획: 145.9% · 안주견직공장: 130.2%
채취기계공업국	- 인민경제계획: 141%

<관광>

중앙일보(2.2), news1(2.18), 국민일보(2.25)

신식장비와 공항을 앞세워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는 북한

싱가포르 사진작가가 지난해 말 북한 마식령스키장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치품 판매를 금지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마식령스키장에 유럽산 곤돌라 등 고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2013년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사

의 곤돌라 수입을 추진했었지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엔 제재를 이유로 수출을 불허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곤돌라와 함께 스웨덴산 제설기 등 고가의 유럽산 장비가 마식령스키장에 설치돼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형세임. 3월에 대북제재가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 번 강화된 만큼 이러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임.

한편 마식령스키장에 인접한 원산의 갈마공항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감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갈마공항은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해, 금강산, 해수욕장, 국제 어린이 야영캠프와 인접해, 극동지역 러시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 하지만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임.

<에너지>

노컷뉴스(2.5, 2.26)

자연에너지 활용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북한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열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태양빛전지판을 이용한 전력생산, 평양자동화기구공장에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풍력발전기와 축전지충전장치를 개발한 소식을 보도함.

전력사정이 개선된 북한 일부지역

한편 자연에너지와 별개로 함경북도 청진화력발전소와 선봉화력발전소의 가동율이 높아지면서 청진시 지역의 전력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짐. 이에 김책제철소와 청진조선소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매일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함. 수력발전이 어려운 겨울철 함경북도 전력생산의 절반은 청진화력과 선봉화력이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 발전소는 지난해 대규모 보수 공사를 거쳐 전력생산량이 늘어났다고 전해짐.

<기타>

세계일보(2.19)

북한의 산업분야 기업 실태

산업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북한 산업분야 기업들의 변화 실태 분석 및 최근 북한 산업정책 방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공업 분야 기업 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3%, 음식료품 가공업 기업 비중은 18.1%로 1995년 3.4%, 13.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 업체의 수는 2,971개로 1995년의 2,555개보다 416개가 늘었음. 전력공업, 음식료품 가공업 분야 외 광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중화학공업 분야의 비중이 35.2%로 1995년 42.1%에서 크게 줄어들었음.

대외경제

〈대북제재〉

Voice of America(2.8),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16), Toronto Star(2.16), Voice of America(2.18), 디지털타임즈(2.19), 동아일보(2.20), Bloomberg(2.21), Washington Post(2.22), 신화망[新华网](2.25), 환구시보[环球时报](2.26)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일본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 이후 가장 빠르게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한 국가임.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을 기향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음. 또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재입국도 금지했으며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이하 송금을 제외한 대북 송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 신고 기준을 100만엔에서 10만엔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함.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한편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H.R. 757)에 서명하였음. 이 새로운 법안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사이버 공격, 인권 탄압을 지원한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광물 거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대해서 기존 행정명령이나 법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북한의 제3국의 조력자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이러한 제재가 지속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함.

한편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법안을 시행하는데 4,4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법안 시행비용으로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제재강화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과 정보유입 확대 등 4,4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함. 세부적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과 탈북자 지원, 행정부의 의회 제출용 보고서 작성 비용 등에 3,300만달러 그리고 제재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비용 등에 1,1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대북제재와 중국

2월 23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미 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환구시보」에서는 이번 합의는 중미

양국이 서로 타협한 결과라고 언급함. 대북 제재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편에 섰다고 원망할 필요 없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보도함. 또한 중국은 중북의 우호관계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중북 우호 관계를 지키는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해 엄격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함.

「환구시보」는 중국은 대북 제재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중미 간의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함.

하지만 중국은 제재가 핵무기 개발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기업이나 외국 중개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초석이 중국이기 때문. 또한 북한은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해서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화벌이 중 70~80%는 중국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효과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많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KBS(2.26)

아래 표는 2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스위스 (외무부 개발협력처)	2016년	지원금	10만달러 (약 1억 2천만원)	국제 장애인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장애인 관련 사업 지원
스위스 (외무부 개발협력처)	2016년 7월	분유	1,300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지원 사업

남북교류

<개성공단>

서울신문(2.1, 2.22), 연합뉴스(2.10)

개성공단 가동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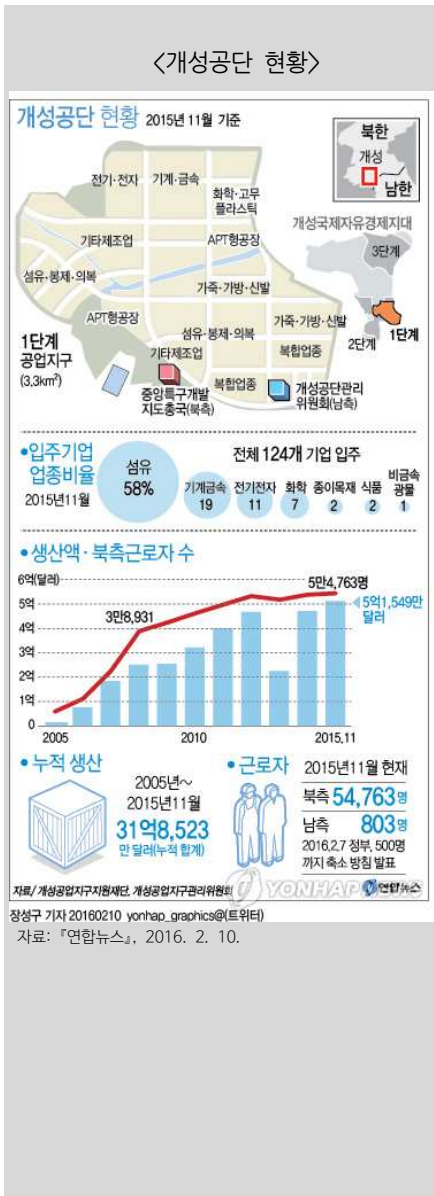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림.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짐.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개성공단 경험보험금 지급

정부가 25일부터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험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함. 경험보험에는 가동기업 79개와 영업소 33개가 가입했으며,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예정임. 경험보험금은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험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음. 다만 경험보험에 미가입한 44개사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2015년 개성공단 실적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015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4년 공단 가동 이래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한 것으



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2015년 1~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의 생산액은 5억 1,549만달러였으며, 12월 생산추정액을 포함하면 5억 6,000만달러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0년 3억 2,332만달러, 2011년 4억 185만달러, 2012년 4억 6,950달러, 2013년 2억 2,378만달러, 2014년 4억 6,997만달러로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로 13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2013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해온 바 있음.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 kseulki86@kdi.re.kr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2.01] 남북 갈등 무풍? 개성공단 생산액 첫 5억 달러 돌파 (서울신문)
- [2016.2.02] 마식령에 유럽산 곤돌라, 수백 만원대 노르디카 스키 (중앙일보)
- [2016.2.03]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뜻깊게 맞이하자 (민주조선)
- [2016.2.03]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 (로동신문)
- [2016.2.04] 전국적인 자급비료생산성과 계속 확대 (민주조선)
- [2016.2.05] 北 일부지역 전력사정 개선...청진시 밤11시까지 공급 (노컷뉴스)
- [2016.2.06] 첫달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로동신문)
- [2016.2.08] Fresh Japane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minent (Voice of America)
- [2016.2.10]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대응카드 (연합뉴스)
- [2016.2.16] The problem with cracking down on North Korea (Toronto Star)
- [2016.2.18] US Imposes New Sanctions Against N. Korea (Voice of America)
- [2016.2.18] 美, 4400만 달러 들어가는 대북제재법 (헤럴드경제)
- [2016.2.18] 北 원산 갈마공항 활용, 러시아 관광객 유치 나서 (news1)
- [2016.2.19] "北 20년간 전력·음식업체 늘고, 중화학 줄었다" (세계일보)
- [2016.2.19] 일본, 대북 독자제재 확정...북 국적자 입국 및 대북송금 금지 (디지털타임즈)
- [2016.2.20] 美 초강경 대북제재법 발효 (동아일보)
- [2016.2.21] How North Korea Funnels Cash Into the Country (Bloomberg)
- [2016.2.22] Punishing North Korea: A rundown on current sanctions (Washington Post)
- [2016.2.22] 개성공단 경험보험금 3300억 25일부터 지급 (서울신문)
- [2016.2.25] 中美外长会就朝核和南海达成了这些共识 (新华网)
- [2016.2.25] "오스트리아제 곤돌라에서 고가브랜드 수두룩" 호화스런 北마식령 스키장 (국민일보)
- [2016.2.26] 中国尽力了, 对朝严厉制裁不可避免 (环球时报)
- [2016.2.26] 北 전력난 해결 안간힘..."자연에너지 활용 박차" (노컷뉴스)
- [2016.2.26] 스위스, 北 장애인 구호사업에 10만 달러 지원 (KBS)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